

【문 11】 다음의 시를 읽고 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침에 귀뚜라미처럼 읊조리고  
 저녁엔 올빼미인 양 노래하네.  
 어찌할 수 없는 시마(詩魔)란 놈  
 아침저녁으로 몰래 따라 다니며  
 한번 붙으면 잠시도 놓아 주지 않아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네.  
 날이면 날마다 심간(心肝)을 깎아 내  
 몇 편의 시를 쥐어 짜내니  
 기름기와 진액은 다 빠지고  
 살도 또한 남아 있지 않다오.  
 뼈만 남아 괴롭게 읊조리니  
 이 모양 참으로 우습건만  
 깜짝 놀랄 만한 시를 지어서  
 천 년 뒤에 남길 것도 없다네.  
 손바닥 부비며 혼자 크게 웃다가  
 웃음 그치고는 다시 읊조려 본다.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렸으니  
 이 병은 의원도 고치기 어려워라.  
 이규보, ‘시벽(詩癖)’

- ① 화자는 자신을 다소 희화화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
- ② 화자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화자는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창조의 보람과 만족감을 맛보고 있어.
- ④ ‘병’은 ‘신체적 질병’이라기보다는 ‘고약한 습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거야.

**【문 12】 다음에서 두 사람 간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바르게 지정한 사람은?**

선희 : 어떤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이 현재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지 않아. 내 생각에 그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의 여부는 그렇게 화려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예컨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가진 것 모두를 잃게 되었을 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며 살다가 어느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 봐. 그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밝게 웃으면서 “참 보기 좋습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잘 살아온 거고, 만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잘 됐군.”하고 말한다면 잘 못 산 거지.

진희 : 나는 네 말에 공감할 수 없어. 삶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 있단 말이니?

선희 : 내 이야기의 초점은 삶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야. 잘 살아왔는지 혹은 못 살아왔는지에 대한 판단은 권력이나 명예를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거지.

진희 : 어쨌든 네 말은 한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해 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 있다는 거잖아.

선희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니까. 너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에야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말에도 공감하지 못하니?

진희 : 그건……. 여하튼 네 말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좌우된다는 거잖아? 나는 자신이 잘 살아왔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은 오직 본인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

- ① 철수 : 두 사람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② 순자 : 한 사람이 상대방 이야기의 한 부분만을 문제 삼 기 때문이다.  
 ③ 숙희 : 두 사람이 용어의 개념들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였 기 때문이다.  
 ④ 영희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에 대한 인신 공 격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문 13】 다음 시의 주제를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낸 연은?**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5.

- ① 3연    ② 5연    ③ 7연    ④ 9연

**【문 14】 작가가 다음 <보기>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보기>

(교수가 소파 앞에 굴러 있는 신문지를 집어 본다.)

교수 : (신문을 혼자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의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책이 착취사(搾取社)에서 다시 나왔어.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접는다. 날짜를 보더니)

처 : 당신두 참, 그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은 여기 있는데.

교수 : (보던 신문 날짜를 읽고) 오라, 삼 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군.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오늘 신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에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책이 악마사(惡魔社)에서 다시 나왔어.

처 :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이근삼, '원고지'(1965)

- ① 반복되는 일상                      ② 비정상적인 사회
- ③ 의사 소통의 장애                ④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문 15】 다음 글에서 각 문단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한 것은?**

문화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지식(知識)의 소산(所産)이다.

(가) 이상(理想)이나 문화나 다 같이 사람이 추구(追求)하는 대상(對象)이 되는 것이요, 또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니, 그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이상은 현실 이전의 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추구하여 현실화시키는 데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식의 공급원으로는 다시 서적이란 것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 문화인이면 문화인일수록 서적 이용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적의 의존도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적 중에는 입수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불평(不平)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류(人類)가 지금까지 이루어 낸 서적의 양은 실로 막대하다. 옛날에도 서적이 많다는 표현을 ‘오거서(五車書)’와 ‘한우충동(汗牛充棟)’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오거서’나 ‘한우충동’ 따위의 표현으로는 이야기도 안 될 만큼 서적이 많다.

(라) 우리 나라 사람은 일반적으로 책에 관심이 적은 것 같다. 학교에 다닐 때에는 시험이란 위력(威力) 때 문이랄까, 울며 겨자먹기로 교과서를 파고들지만, 일단 졸업이란 영예(榮譽)의 관문을 돌파한 다음에는 대개 책과는 인연(因緣)이 멀어지는 것 같다.

6.

- ① 가 : 문화와 이상은 여러 모로 닮은 점이 많다.
- ② 나 : 문화인일수록 이상이 점점 더 높아진다.
- ③ 다 : 옛날에도 서적의 양은 매우 방대했다.
- ④ 라 :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에 대한 관심이 적다.

**【문 16】 다음의 <보기>에서 부자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어쨌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그 외 지금 조선어 사전 편찬하는 데…….”

(아들) 상훈이는 조심도 하려니와 기를 녹이어서 차근차근히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할 말은 다 하겠다는 듯이 말을 이어 나가려니까 또 (아버지의) 벼락이 내린다.

“듣기 싫다! 누가 네게 그 따위 설교를 듣자든? 어서 가거라.”

“하여간에 말씀입니다. 지난 일은 어쨌든, 지금 이 판에 별안간 치산이란 당한 일입니까. 치산만 한대도 모르겠습니까마는 서원을 짓고 유생들을 몰아다 놓으시겠습니까? 돈도 돈이거니와 지금 시대에 당한 일입니까?”

상훈이는 아까보다 좀 어기(語氣)를 높여서 반대를 하였다.

“잔소리 마라! 그놈 나가라니까 점점 더하고 쏘고나. 내가 무얼하든 네가 총찰(總察)이란 말이나. 내가 죽으면 동전 한 닢이라도 너를 남겨 줄 테니 걱정이란 말이나. (중략) 너는 이제는 남 된 셈만 쳐라.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

염상섭, ‘삼대’

7.

- ① 아버지는 조상을 섬기는 일에 가치를 두고 있으나, 아들은 그렇지 않다.
- ② 아버지는 돈(물질)을 중시하고 있으나, 아들은 돈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
- ③ 아버지는 예의 바르고 또박도박한 언행을 중시하나, 아들의 언행은 그렇지 못하다.
- ④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애정을 보이고 있으나, 아들은 그 애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 17】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한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학문에 진리 탐구 이외의 다른 목적이 선불리 앞장을 설 때, 그 학문은 자유를 잃고 왜곡(歪曲)될 염려 조차 있다. 학문을 악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진리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 학문은 한때의 신기루와도 같아, 우선은 찬연함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과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부터가 문제다.

진리의 탐구가 학문의 유일한 목적일 때, 그리고 그 길로 매진할 때, 그 무엇에도 속박됨이 없는 숭고한 학적인 정신이 만난을 극복하는 기백을 길러 줄 것이요, 또 그것대로 우리의 인격 완성의 길로 통하게도 되는 것이다.

- ① 매진 : 邁進    ② 속박 : 束縛    ③ 만난 : 萬亂    ④ 기백 : 氣魄

**【문 18】 다음 예시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진술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 엄청난 기아 사태가 오리라고 암울한 미래를 예측한 말더스에게 변수는 전쟁이었지만 실제의 역사는 그가 예상한 전쟁 말고도 그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두 측면으로 기아폭발은 방지되었다. 그 한 측면은 식량증산기술이 관개시설, 영농기구로부터 농약·비료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고 이제는 생명공학으로 무제한적인 식량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한 측면은 생활풍속의 변화와 국가정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떨어진 점인데, 1965년 이후 인구증가율은 1.4퍼센트대로 떨어져 오늘날 유럽은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고 후진국은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말더스는 당시의 상황과 수준에서 연역해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미래에 일어날 갖가지 미지의 변화 함수를 예측하지도,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중략) 그러나 여기서 귀중한 것은 비관론자의 우려와 경고가 있었기에 그에 대응하는 대안 탐구와 정책 추구가 수행된 것이고, 그 결과가 비관적 미래 예측의 울타리를 뛰어넘게 한 것이다. 도박에서는 늘 낙관론자가 이기지만 그것이 이길 수 있도록 현상의 타개를 밀어주는 것은 늘 비관적 전망이다.

8.

- ① 세계인구는 1965년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군.
- ② 알고 보니 선진국에 비해서 후진국의 인구증가율이 더낮은 편이네.
- ③ 현재의 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는 변수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어.
- ④ 비관적 예측이 적중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예측이 상황의 변화에 적극적인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있지.

**【문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은 혹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모르시지는 않습니까?

- ① ‘잘하던데’ : 과거 회상의 선어말 어미 ‘-더-’  
 ② ‘가든지 오든지’ :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③ ‘-노라고’ :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④ ‘믿으므로’ :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명사형 ‘믿음’에 붙은 ‘으로’는 도구나 재료를 나타내는 조사이다.